

해리스-월즈 vs 트럼프-밴스...美 대선 대진표 완성

美민주 부통령 후보에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진보 성향 백인 남성 "민주 취약지 내륙주 공략 적임자"...트럼프, 배경 언급 없이 "땡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진보 성향의 백인 남성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가 낙점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의 정·부통령 후보인 해리스-월즈 조와, 공화당의 정·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J.D 밴스 조의 대결로 전개되게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팀 월즈에게 내 러닝메이트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주지사이자, (풋볼) 코치, 교사, 퇴역군인으로서 그는 그의 가족과 같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 성과를 내왔다"면서 "그가 우리 팀이 된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월즈 주지사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선거운동에 해리스와 함께 하게 된 것은 평생의 영광"이라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올인(all in·다걸기)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개학 첫날 같은 느낌"이라며 "자, 여러분, 우리 이 일(대선 승리)을 해냅시다"라고 썼다.

미네소타에서 6선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19년부터 미네소타 주지사(재선)로 재직 중인 월즈 주

지사는 친서민·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기 규제, 공공요금 강화 등 민주당이 중시하는 이슈를 상식에 준거한 합리적 논리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언변도 갖췄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월즈 주지사는 이번 대선 선거전 과정에서 공화당 정·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을 겨냥해 "그들은 이상하다(They're weir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큰 환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공화당 측으로부터 강성 진보주의자라는 공세를 받는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월즈 주지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 등 부통령 후보군을 놓고 고민해왔다.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주지사를 최종적으로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은 정·부통령 후보간 밸런스를 취하는 '방어형 인선' 대신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트럼프 진영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공격형 인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브래스카주의 인구 수백명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월즈 주지사는 정계 입문 전 고교 지리 교사

겸 미식축구 코치로 일했다.

여기에 더해 6·25 전쟁에 참전한 부친의 뒤를 따라 자신도 17세 때부터 비상근 주방위군으로 24년간 복무하는 등 소박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대중 친화적이고 '독표 친화적'인 이력을 쌓았다.

그는 2004년 대선에 나선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연방 하원의원 시절에는 총기 관련 권리와 이슬람, 송유관 건설 등을 지지한 투표 이력으로 인해 당내 온건파로 평가됐지만 주지사로서 낙태, 유급 휴가 보장,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 총기 구입자에 대한 이력 심사 등 문제에서 분명한 진보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경제 진보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전미자동차노조(UAW) 손 페인 위원장이 각각 그를 노동자 계층의 확고한 대표라고 칭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내 진보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미국 중서부 '시골' 출신(네브래스카주에서 태어나 30대 초반 미네소타로 이주)에 현재의 주립대에서 수학한 그의 평범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이력은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내륙주, 특히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등을 공략할 카드로 꼽힌다.

특히 공화당이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부근 공업지대) 출신의 '개전의 용'인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 내륙 지역 중산층 이하 주민들을 공략하는 데 맞설 수 있는 효율적인 '맞춤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기대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하마스에게 맞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리를 지지하되, 전장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염려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최대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유세에 처음 동반 출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7개 경합주를 함께 잇따라 방문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월즈 주지사 관련 발표가 있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다른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월즈 vs 밴스	
팀 월즈 민주당	J.D 밴스 공화당
1964년 4월생 (60세)	나이 1984년 8월생 (40세)
네브래스카 웨스트포인트	출생지 오하이오 미들타운
1981년 육군 방위군 입대	2003~2007 해병대 복무
1989년 네브래스카 채드런 주립대 사회과학교육학사	2009년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과 철학 학사
1989~1990년 중국 고등학교 교사	2013년 예일대 로스쿨 법학박사
1996년 미네소타로 이주, 맨케이토고 교사 겸 교내 미식축구팀 코치	2015년 샌프란시스코 벤처캐피탈 회사 미사일 캐피탈 입사
2001년 미네소타 주립대 교육 리더십 석사	2016년 베스트셀러 자서전 '월빌리 엘레자' 출간
2005년 육군 방위군 사령관 상사 제대	2019년 오하이오에서 벤처 기업 공동 창립
2007~2019년 미네소타 연방 하원의원 6선	2023년~ 오하이오 상원의원(현)
2019년~ 미네소타 주지사(재선, 현)	

어떤 배경 언급도 없이 "고맙다"(THANK YOU!)라고 썼다. 이는 진보 성향인 월즈 주지사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 낙점이 자신들의 선거 전략상 유리한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하마스 새 지도자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 신와르...가자 '떡구름'

하마스 "이스라엘에 저항 메시지"...이스라엘은 "신속히 제거해야" 비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폭사한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후임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62·사진)를 선출했다.

외교 활동과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정치국장인 하마스 내 강경파인 신와르가 오르면서 교착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친이란 '저항의 축'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더 깊어져 휴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6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정치국장으로 선출돼 순교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뒤를 잇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니에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지 7년째 만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과 헤zbollah 등의 보복 공격이 압박했다는 관측 속에 '저항의 축' 일원인 하마스도 신속하게 조직을 추스르고 나선 것이다.

2017년부터 하니에의 뒤를 이어 하마스의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한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대규모 공격 작전의 설계자다.

오사마 할단 하마스 대변인은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신와르 선출에 정치국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할단 대변인은 협상 대표단이 신와르의 책임하에 들어가게 됐으며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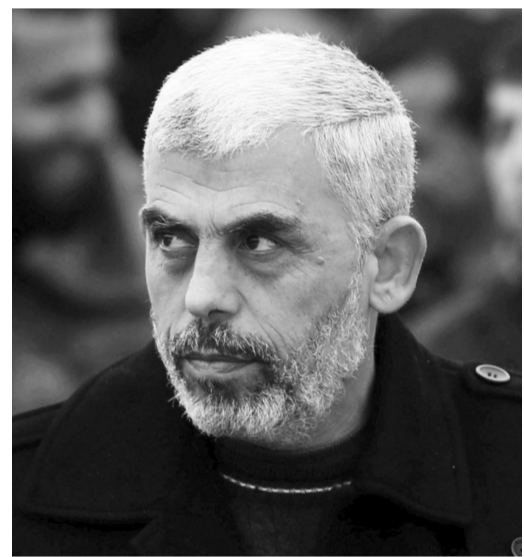
하마스 관계자는 신와르 최고지도자 선출을 두고 "하마스가 저항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점령자(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하마스가 하니에 후임 지도자로 테러리스트 신와르를 임명한 것은 그를 하루 빨리 제거하고 이 사악한 조직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한다는 또 다른 이유"라고 비판했다.

다니엘 하카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신와르에게는 오직 한 자리만 있다"며 "이는 무함마드 데이프와 '10·7' 테러리스트 결"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알아라비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마스 정치국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AP 통신은 신와르가 새 정치국장이 된 것에 대해 "하마스 내 강경파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살생부 맨 위에 올려놓은 그가 선택된 것에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1962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난민촌에서 태어난 신와르는 하마스에 1987년 창립 때부터 참여했으며 1989년 이스라엘 군인 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스라엘 감옥에서 22년을 복역하고 2011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후 하마스 군사조직 책임자가 됐다.

신와르는 2017년부터 가자지구 지도자를 맡았고 이스라엘군은 2021년 그를 표적으로 한 공습도 벌였다. /연합뉴스

도쿄도 "日극우단체 '조선에 돌아가라'는 혐오 발언"

지난해도 간토 조선인 학살 추도식서 재일교포에게 혐오 발언

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도하는 행사에 참석한 재일 교포들에게 "조선에 돌아가라"고 발언한 것은 도쿄도 조례에 어긋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야미초 공원에서 개최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극우 단체인 '일본여성회 소요카제(산들바람)' 집회 참가자가 "조선에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추도식 참석자는 "현장에는 재일 한국인·조선인도 있었다.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도쿄도에 고발했다.

이에 도쿄도는 이 발언이 도의 인권존중조례에서 금지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지난 2일 공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관련 동영상 삭제도 도쿄법무국에 요청했다.

다만 차별 발언을 한 인물과 장소 등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소요카제 관계자는 2019년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뻔뻔한 재일조선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됐다"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가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내달 1일 도쿄도 스미다구에서 개최되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추도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도쿄도에 최근 전달했다.

도쿄도 교수와 직원 83명도 고이케 지사가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관련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도쿄도에 제출했다.

지난달 7일 치러진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3선 임기를 시작한 고이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6년에는 추도문을 전달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은 보내지 않았다.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간토 지역을 강타한 규모 7.9의 초강력 지진이다.

10만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난 이 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에 살던 조선인 수천 명 등이 일본 자경단원, 경관, 군인의 손에 학살됐다.

조선인 학살 희생자는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